<제1강_'슬기 맑힘'의 철학>

철학의 과제: 슬기 맑힘

구연상(숙명여대)

이 책을 쓴 동기:

촛불모임이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든 한번 시작되자 흩어져 있던 연결망이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했고, 온오프라인을 통해 결속하게 되었다. 이로써 민중정치제도의 핵심 개념인 "연대(連帶)", 즉 "**함께하기**"가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.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은 막을 수가 없다. 그 어떤 독재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.

↳ 촛불모임의 함께하기는 "누군가" 촛불을 제공하고, "누군가" 모임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, "누군가" 생수나 의약품을 실어 나르고, "누군가" 촛불모임을 이어가기 위한 돈을 모으고, "누군가"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무료로 해 주고, 또 "누군가" 모임이 진행되는 그대로의 모습을 생중계한다. 서로 다른 신분이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"사회 진보"를 염원하는 모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한다. "연대"는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일을 말한다.

↳ 촛불모임은 한국 사회의 여러 특성과 마찰을 빚고 있다. 윗사람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지난날의 권위주의가 젊은 세대의 자기주장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. 미국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깨지고 있다.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. IMF 때부터 가속화된 제도와 법 그리고 정신의 미국화를 주체성의 상실로 여기고, 스스로를 이 땅과 이 하늘의 "떳떳한 새뚝이[1]"로 우뚝 서려 한다.

김지하(원불교 은덕문화원에서 행한 소태산 아카데미 강연, 2008.)

제1강

[1] 춤판을 비롯한 전통 공연에서 하나의 판을 깨고 새로운 판을 여는 사람을 말한다.(백기완)

철학의 의미

슬기 맑힘의 뜻매김

좋음과 나쁨

악(惡)이란 무엇인가?

촛불모임에 나타났던 사람들: 지중(智衆)

제2강

"개인(個人)"과 "못-나누미"

못나누미의 본질

못나누미와 서양 근대(소유 > 자유 > 모험 > 파멸>

함께 나누미

(제1장)

1. "철학(哲學)"의 의미는 무엇인가?

⇒ "철학(哲學)": "철(哲)에 관한 학문"

⇒ "철"은 지혜란 뜻의 "소피아(sophia)"의 번역어

⇒ 철학은 '소피아에 대한 학문'

⇒ "학문": 사랑이란 뜻의 "필리아(philia)"의 번역어

⇒ "철학": "소피아에 대한 필리아" 또는 "지혜에 대한 사랑"

⇒ 필로소피(철학)는 과학화의 길 또는 고고학의 길을 걷고 있다.

2. 번역(飜譯)은 무엇인가?

⇒ "학교(學校)[배움]"와 "교육(敎育)[가르침]"의 뜻?

⇒ "승기악탕(勝妓樂湯)"은 '스끼야끼'인가, 삼나무 판자 위에 어육을 놓고 불을 피워 구운 요리인가?

3. 철학(哲)과 필로소피아의 본디 뜻은 무엇인가?

⇒ 재판의 일: 공정성, 현명함, 단호함, 책임감

⇒ 지혜(智慧) > 반야(般若)

⇒ 필리아: 자기 안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잠재적인 것에 대한 사랑

⇒ 소피아: 사람다운 올바른 삶을 위한 관조

⇒ 필로소피아: 진리 사랑

(제2장)

1. "철학(哲學)"의 뒤쳐 옮김 말 "슬기 맑힘"에 대한 풀이

⇒ 맑힘: '슬기 맑힘'에서 바탕이 되는 낱말

⇒ 효도(孝道): 효[어른 섬기기]를 이루기 위한 길

2. "맑힘"에서 "-히"의 문제

⇒ 일씨의 보기들: 살리다, 죽이다.

⇒ 맑지 않음 : 흐림

(제3장)

1. 슬기의 반대말: 어리석기

⇒ 어림

⇒ 석음

2. 슬기로움(『후회와 시간』): "지혜란 보다 나는 삶을 살 줄 앎이다."

⇒ 걷음 > 닦음

⇒ 역경과 고난

(제4장)

1. 슬기: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

2. 살아나감의 뜻

⇒ 태어남과 죽음: 마무름

⇒ 나이 먹기

⇒ '나': 나이를 먹어가는 '나이 바퀴'

⇒ '나잇살'과 '시간-살': 삶의 시간은 '시간 결'을 따라 흐른다.

⇒ 살아나감은 삶의 테두리(역사)를 완결지어 나가는 것, 그리고 끝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.

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에 그치는 게 아니라, 그 생각을 빚는 물레이고, 생각의 사슬을 마디마디 이어나가는 고리이며, 생각하는 사람들로서의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고향이자 언제나 머물러 사는 집입니다. 말의 빈틈은 곧 생각의 구멍을 뜻하고, 말의 허술함은 집의 허물어짐을 말합니다. 말은 우리의 삶을 마름질하기 위한 도구이자 마름질로써 일구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. 이것은 삶의 어제가 곧 내일의 기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

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. 왜냐하면 철학은 사람의 삶 자체를 주제로 삼기 때문입니다. 철학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룹니다.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보살피고 간직하고자 하는 것, 즉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.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'삶 그 자체'입니다. 여기로부터 참(진리), 말(언어), 저 홀로 스스로 있는 것(자연),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(도덕), 지켜야 할 규범(법), 그리고 삶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원리들에 대한 탐구가 나옵니다. 우리는 오늘날 "철학"이라는 낱말로써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의 기초를 엮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철학의 사슬은 똑똑 끊긴 상태입니다.

"철학"이란 말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허술합니다. 어쩌면 저는 이것이 "소피아에 대한 필리아"로서의 "필로소피(philosophy, 철학)"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. 필로소피(철학)는 과학화의 길 또는 고고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과학은 철저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, 고고학은 끈질긴 고증을 요구합니다. 하지만 철학에서 "엄밀한 증명"을 요구하는 일은 철학을 "과학의 사슬"로 꽁꽁 동여매는 것과 같고, "사료적 고증"을 엄격

히 요청하는 일 또한 철학을 숨 막히게 할 뿐입니다. 철학에게는 마음껏 생각할 자유가 무한히 허용되어야 합니다. 철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말뿐입니다. 철학은 "말이 되는 한에서만"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철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"철학"이라는 말 자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. 즉 누구나 그 말을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,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하며, 그 말로써 철학의 온 영역을 거침없이 누비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. 새 술을 새 병에 담듯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 알맞은 새 말로써 빚어야 합니다. 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, 마음 또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. 철학은 삶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지만, 이를 위해 철학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. 제가 "철학"이라는 말을 대신할 새 말을 찾고자 했던 까닭도 삶 자체를 새롭게 이해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구연상, 『철학은 슬기 맑힘이다』, 머리말.